영국 한적한 주택가서 퍼지는 佛法

해러것지역 데첸 불교 명상센터
주택 개조해 법당 · 명상실 구성
60명 신도 나서 센터 직접 운영
매주2회 예불 · 명상 · 교리 논의

김민재 객원기자



데첸 불교 센터의 신도 데이비드 불룩, 그렉 튜네시, 관리자 트리샤 퀸, 하워드 퀸(좌측부터) 데첸 불교센터 전경.
사진출처=더 스트레이 페럿

영국 노스요크셔주 해러것 지역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데첸 불교센터가 현지인들에게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쳐 화제다. 해당 지역뉴스매체인 '더 스트레이 페럿'은 4월 8일 해러것 지역에서 활동하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와 데첸 불교센터를 소개했다.

해러것 지역 그랜빌 로드에 위치한 데첸 불교센터는 티베트 불교사원으로, 평범한 지역 주택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데첸이란 티베트어로 '큰 기쁨(大樂)'이라는 뜻이다. 센터는 기도와 법문이 진행되는 법당과, 명상을 위한 명상실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매년 두 번 티베트 스님인 라마 잠빠타야 스님이 방문해 신도들을 지도한다. 그 외 기간에는 60여 명의 신도가 센터를 운영하며 이웃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라마 잠빠타야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2종단인 싸꺄파와 카규파의 법맥을 모두 수학한 강사이자 숙련된 명상지도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인도 델리에 소재한 카르마파 국제불교연구소의 국제 교수진 소속이다. 6대 까르마빠와, 은사인 까르마 틴레 린뽀체의 권유로 영국을 시작해 유럽과 미국에 여러 불교센터를 설립하며 주로 서구권에서 포교를 하고 있다.

스님은 1975년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에 캄포 캉그라 카규링 센터를 설립했고 1977년에는 영국 최초 티베트 불교 샤카파 불교센터인 싸꺄 틴레 린첸링을 개원했다. 해러것의 데첸 불센터는 앞의 두 센터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지역 불교공동체의 주요 거점으로 설립됐다.

데첸 불교 센터 신도 데이비드 불록은 "나는 내면에 안식을 찾기 위해 종교를 찾고 있었고, 서구의 주요 흐름인 기독교는 나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모든 폭력을 막을 수 없는지 의구심만 품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14년 전 한 기사를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불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불록은 "신을 숭배하지 않고 깨달음, 즉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열반을 목표로 삼는 것이 새로웠다"면서 "이곳에서 나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신도인 그렉 튜네시는 "나는 기독교 신자였지만 불교로 개종했다. 이는 인생을 바꾼 큰 경험이었다"면서 "데첸 불교센터에서의 명상체험이 내면의 깊고 심오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줬다. 부처님 가르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준다"고 말했다.

데첸 불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퀸은 "불교는 나에게 상처뿐이었던 어린시절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권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삶에서 극심한 충격을 겪은 후 개종한다"면서 "명상과 가르침은 때대로 변화와 함께 오는 원초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 신도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며 삶의 선함을 명료하게 본다"면서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습관을 다시 느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데첸 불교센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여 함께 예불과 명상을 하고 새롭게 불교를 찾아온 이들을 안내한다. 특히 명상을 한 뒤 불교교리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 삶과 경험에 연관되는지 나눔으로써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정진하고 있다.

日, 기타 선율 맞춰 반야심경 독송

토켄 스님 영상 유튜브서 화제
한달 10회 라이브 불자와 소통


통기타 선율 맞춰 반야심경 독송하는 토켄 스님.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 스님이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맞춰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영상이 화제다. 4월 7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기타 선율에 젖어든 반야심경 독송 영상과 스님을 소개했다.

일본 니가타현 고센시에 위치한 조동종 사찰, 요코쿠지(永谷寺). 아름다운 통기타 선율에 맞춰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스님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사찰에 새로운 분위기가 돌고 있다. 영상 주인공 요시하라 토켄 스님은 기타를 연주하며 전통적인 독경법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전혀 색다른 두 스타일이 만나 독특하면서 반야심경의 음률을 만들어 냈다.

토켄 스님은 "통기타는 전통적 의례 도구인 목탁보다 훨씬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 청자가 경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첫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5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침체된 분위기로 우울해진 불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영상 제작을 제안했다"고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무엇보다도 기타는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청소년기를 이겨내게 해준 악기"라며 "기타로 코로나 블루를 겪는 불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노래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기타를 치며 반야심경을 독송하게 된 사연을 덧붙였다.

독송 영상이 게재된 후 사찰에 "통기타를 치며 독송하는 스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요코쿠지 측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는 조석 예불에 기타 반야심경 독송을 추가했다. 요청에 따라 타지역에서 독송하기도 한다. 현재 스님은 한 달에 최대 10회 정도 기타 반야심경 독송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중계가 아닌 실제 스님의 육성을 듣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불자들이 요코쿠지를 방문하고 있다.

토켄 스님은 "일본은 현재 출산율은 감소하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요코쿠지가 소재한 무라마츠 지구의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나의 노래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사찰이 사람들이 잠시 들러 교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통기타 독송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전했다. 스님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다"면서 "전통적인 불교 이미지에서 벗어나 불자들의 흥미를 일깨우는 나의 통기타 독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109세 노승 루앙 포 야이 스님 입적

3월 22일, 태국 최고령 출가자
SNS속 모습 전 세계서도 화제


태국 최고령(109세) 출가자 루앙 포 야이 스님의 틱톡 영상.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태국의 109세 노승, 루앙 포 야이 스님이 입적했다. 4월 8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109세 노승의 입적 소식을 전했다. 루앙 포 야이 스님은 태국에서 생존한 최고령 출가자였다.

영상 SNS 플랫폼인 틱톡(TikTok)에서 손녀와 증손녀와 함께 하는 동영상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태국의 109세 노승 루앙 포 야이 스님이 3월 22일 입적했다.

지난날 틱톡 영상에서 스님은 마치 미라와 같이 마른 모습에 증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하는 모습이 담겨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영상은 1억 7천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영상 속 스님이 163세이며 즉신불(即身佛) 수행 중이라는 허위 주장도 퍼졌었다.

영상이 화제를 일으키자 이를 촬영한 스님의 손녀 아우이 아우야라이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영상은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며, 지난 1월 스님은 엉덩이뼈 골절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아우이는 스님의 병원생활을 도표로 작성해 증명했다.

또한 스님의 세납이나 수행에 대한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초고령이자 환자인 스님의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이 일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은 아우이와 노스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스님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틱톡에 업데이트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하던 아우이는 한동안 업로드를 중지했고 최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3월 22일 스님이 입적했음을 전했다. 공개한 영상 속엔 스님의 다비식과 유골을 수습하는 장면들이 담겼다.

아우이는 "태국에서 존경받던 스님인 우리 할아버지는 109세였다. 할아버지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가끔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청력이 좋지 않아 종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의식은 여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로웠다. 110세가 되는 4월 1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입적에 드셨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아우이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서 스님의 생전 영상들을 공개하며 스님을 추모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네팔, 룸비니 걷기로 '세계평화' 발원

IOC 초청 대규모 이벤트 추진
룸비니 홍보·관광활성화 기대



네팔올림픽위원회(NOC)가 국제스포츠의날(IDSPD, 4월 6일)을 기념하며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반 람 쉬레샤 네팔올림픽위원회장은 4월 3일 네팔올림픽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염원하며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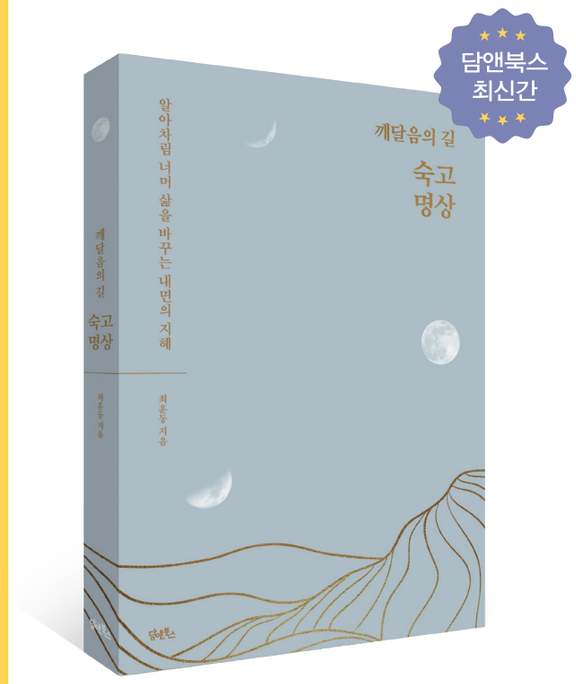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네팔올림픽위원회는 룸비니 걷기대회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된 207개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적 행사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올림픽위원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집행위원을 구성한 상태다.

지반 람 쉬레샤 네팔올림픽위원회장은 "룸비니 걷기대회는 세계에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홍보함과 동시에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구상됐다"면서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올림픽위원회는 이번 걷기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삶?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삶이다!



정신과 의사, 최훈동 원장이 전하는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최훈동 지음 | 248쪽 | 15,500원

불교와 명상, 심리 치료는 하나다!
불교를 심리 치료적 견지에서 새롭게 해석한 역저
싯다르타의 깨달음의 여정에 따라 행복에 이르는 길

최훈동
마음 전문가. 서울대의대 외래교수로 25년간 정신 치료를 지도하고, 휴앤심 연구소에서 종교와 정신의학, 명상과 심리치료를 아우른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 『정신의학 이야기』, 『나를 넘어선 나』 등이 있다.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2)765-1251 담앤북스

저자와 함께 하는 숙고 명상 워크숍

명상은 관련 책을 백 권 읽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통해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숙고 명상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22년 4월 30일(토), 5월 1일(일), 7일(토), 8일(일) 총 4회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6시, 일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 교재 |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 수업 내용 | 명상 안내, 명상 실습, 숙고록 작성(1:1 피드백 제공)
1회 명상 입문, 집중 관찰 명상 2회 호흡 명상, 숙고 명상1
3회 호흡 명상, 숙고 명상2 4회 자비 명상, 무아 명상
* 1회 또는 전체 참가 가능합니다.
* 각 회기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회를 거듭할수록 점층적으로 심화됩니다.

| 참가비 | 대면 1회 8만 원, 4회 30만 원
비대면 1회 5만 원, 4회 18만 원 *선착순 모집

| 참가 신청 및 문의 | ungang817@naver.com
*신청 시 성명, 연락처, 참석 희망 일자를 기재해 주세요.